

11-17-2024 주일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다니엘 9:24-27

말씀 제목: 입박한 휴거와 대 환란과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 주(490년)가 정해졌으며 70 주가 시작되는 시점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시작하여 69 주(483년) 후에 메시아, 즉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주(7년)가 시작할 때 나타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483년 후에 나타나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지막 한 주(7년)만을 남기고 이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한 주요 70 주째인 7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자신의 복음전도자들을 통해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휴거시키신 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롬 1:16-23)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 환란 직전에 하늘로 휴거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욱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움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는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피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4-32)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대 환란 직전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행하게 될지에 대해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1-3)

휴거와 대 환란 직전인 지금도 누구나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눅 24:44-53)

휴거되지 못하고 대 환란에 남겨지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늘로 휴거되지는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로 휴거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는 대 환란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내려와서 함께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때와 시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1-9)
아멘! 할렐루야!